

2023. 2. 9

CJ 대한통운 000120

4Q Review: 컨센서스에 부합한 실적

운송/조선/기계

Analyst **배기연**

02. 6454-4879

kiyeon.bae@meritz.co.kr

RA **오정하**

02. 6454-4873

jungha.oh@meritz.co.kr

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영업이익

4분기 매출 3조 234억원(-1.1% YoY, -2.9% QoQ), 영업이익 1,123억원(+12.5% YoY, +4.4% QoQ)을 기록함. 영업이익 컨센서스 1,141억원에 부합하는 실적임. 세전이익은 615억원(+4.0% YoY, -27.9% QoQ), 지배주주순이익은 367억원(-35.5% YoY, -34.7% QoQ)을 기록함

택배부문은 매출 9,611억원(-1.7% YoY, +5.1% QoQ), 영업이익 535억원(-20.1% YoY, +28.6% QoQ), 영업이익률 +5.6%를 기록함. 4분기 택배 물동량은 4.26억박스(-6.9% YoY, +3.9% QoQ)를 처리했으며 연말 성수기효과로 전분기대비 회복함

CL부문은 매출 7,033억원(+1.7% YoY, +0.0% QoQ), 영업이익 364억원(+38.9% YoY, +18.6% QoQ), 영업이익률 +5.2%를 기록함. W&D와 P&D 판가인상으로 인한 수익성 개선이 주요했음

글로벌부문은 매출 1조 1,303억원(-5.5% YoY, -14.8% QoQ), 영업이익 163억원(흑자전환 YoY, -41.4% QoQ), 주요 3개지역 매출 성장률에서 차이 발생. 미국 +3.5% YoY, 인도 +12.0% YoY, 베트남 -9.8% YoY

4Q22 Conference Call Q&A

- Q1** 글로벌사업부의 해외 현지 신규 인수법인들 매출총이익률 개선 이유는?
- A1**
 - 2022년 글로벌 법인들은 대부분 판관비 감소에 집중했음. 또, 신규 고객들과 재계약 시에도 이익률을 올려서 계약함
- Q2** 택배단가 인상 이후 고객 반응은? 물동량 변화는?
- A2**
 - 1월 1일부 단가를 인상했는데, 물량이 생각보다 많이 이탈함. 2~3월에 롯데, 한진택배도 본격적인 인상을 하는데, 판가인상에 따른 물량이탈은 1분기 내에 회복시킬 계획임
 - 시장성장에 대한 부분을 얼마나 따라잡을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음
- Q3** 단가인상 후 W&D 등 사업부분의 물동량 변화는?
- A3**
 - W&D 및 P&D 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판가 인상은 다양한 계약 중 유가 인상분이나 최저시급 인상분을 못 받은 계약 내에서 인상을 계획함. 파트너사 전체 대상 일방적 인상은 아님
 - 택배 판가 인상 이후 물류비 인상에 대한 공감대가 있고, 맞춤형 고객 전략 판가인상을 통해 크게 거부반응이 있진 않음
 - 고객사들은 인플레이션에 따른 전체 원가 인상에 대한 부담감은 있으나, 원가의 10% 이하를 차지하는 물류비로 인해 생산을 덜하지는 않아 정책 추진에 대한 큰 무리는 없음
- Q4** 차세대 택배 시스템이 기존 시스템과 어떻게 구별되는지?
- A4**
 - 전체 물량의 증가와 다양한 서비스 등을 반영한 시스템 업그레이드. 전체적으로 기능적, 시스템 안정적 측면에서 새로운 시스템으로 거듭나고 있음
 - 2023년 6월 최종 오픈 계획
- Q5** 표준운임제 도입으로 회사 손익상 또는 운영상의 변화가 있을지?
- A5**
 - 2022년 11월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 이후 안전운임제 폐지 논의가 계속되었고, 1월 국토부 주관 공청회가 진행됨. 2월 6일자로 국토부 화물운송사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함. 그 안에 표준운임제 도입, 운송시장 체제 개선 얘기가 나옴
 - 표준운임제 도입은 컨테이너, 시멘트 쪽에서 운송사와 차주간 운임을 강제화 시켜둔 안전운임제에서 화주-운송사간 자율계약, 운송사와 차주간에는 예전과 같은 강제 계약을 적용하는 것
 - 그러나 표준운임제 도입은 법령 개정이 필요해 최소 6개월, 1~2년이 더 필요함
 - 운송시장 체제개선은 기존 법과 충돌되는 부분도 있고, 중소형 운송사의 입장, 차주들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아 정부의 계획 구체화를 기다리고 있음. 아직 동사가 영위하는 운송시장은 기존 안전운임제 체제에서 운영됨

Compliance Notice

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.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.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.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, 대여, 배포 될 수 없습니다.